

메리랑카 크리스마스!

New Product, Proposal.



산도섬뉴이얼!!



칼라의 12월

10기 랑카팀의 마지막 현지활동 보고서

LTE A급 시간속도! @_@

12월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

목차

아디스쿨

01

영어, 음악, 태권도로 구성된 2학기 이야기

NCY와 아디들

04

락산 총장님과의 만남, 새로운 코디네이터

도서관 프로젝트

02

콜롬보 출장, 12월에도 계속되는 도서관 사업

성탄, 연말행사

05

칼라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곳에서 맞이하는 2014년.

Children Club

03

창단식, 금요일은 CC Day!

초콜렛



Yam Nyam

Yammy

아디스쿨 2번째 학기

01 영어수업

Children Club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본래 월, 수, 금요일에 있었던 영어수업 중 금요일 수업을 없애고 일주일에 두 차례의 영어수업을 갖기로 했다.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대략 30명의 아이들이 영어수업에 참여했다면 이번 달 영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20명 가량이다.



02 태권도수업

11월에 이어서 '틴탑-긴 생머리 그녀' 노래에 맞추어 태권무를 가르치고 있다. 12월엔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 등 쉬는 날이 많아서 태권도 수업이 2번 밖에 없었다.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다. 12월 두 번째 태권도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9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태권도 수업에 나오는 아이들은 태권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심지어 영어시간에도 계속해서 태권무 다음 동작을 알려달라고 성화였다.



아피스쿨 2번째 학기

03 음악수업

우리는 아피스쿨 음악수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음악수업을 여는 이유와 수업의 전개 방향을 조율했다. 게임도 알지 못하고 음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세하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게임이나 율동을 접목하여 매주 다른 노래를 배우며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하던 우리는 후자로 방향을 정하였고 수업을 준비하였다.

12월 12일, 첫 음악수업이 진행되었다. YMCA에 키보드가 없어 첫 시간은 노트북에 있는 피아노 앱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음계를 가르쳤다. 새로 키보드를 구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 빈센스 간사님이 집에 있는 키보드를 아피스쿨 음악시간 때 빌려주겠다고 하셨다. 빈센스 간사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 수업시간부터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쉽게 아이들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평균 10명의 아이들이 음악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율동과 게임을 접목한 한국 동요를 타밀어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다.



도서관 프로젝트

01 하피, 콜롬보로 출장가다!

기존에 Y에 있던 책들과 칼라 주민분들에게 기부 받은 책들로 도서관 책 선반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책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서점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있는 칼라에는 서점이 없어 이웃한 도시인 갈무네에 있는 유일한 서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이들 시험 대비 문제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좀 더 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콜롬보로 가게 되었다. 밤 버스를 타고 콜롬보로 출발하여 다음 날 똑같이 밤 버스를 타고 칼라로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방문한다는 것에 설렘을 가득 안고 버스에 올랐다. 역시 스리랑카, 밤 버스라고 낮 버스와 다를 게 없었다. TV를 타고 귓구멍 터져라 울려대는 스피커 소리에 잠 한숨 못 잔 단원도 있었다.



도서관 프로젝트

01 하피, 콜롬보로 출장가다!

그렇게 시끌벅적 도착한 콜롬보, 못 다 잔 잠은 콜롬보 YMCA에서 잠시 머무르며 보충하였고 이튿날 우리는 NCYSL 직원을 만나 콜롬보의 큰 서점을 찾아가 아이들을 위한 타밀책과 영어책, 타밀 소설책, 그리고 교구재를 구입하였다. 이후 NCYSL 사무국으로 돌아와 니랑가 간사님과 도서관 프로젝트와 새 코디 선정에 대한 간략한 회의를 했다.



칼라로 돌아가는 밤 버스를 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우리의 자유시간이었다. 이전에 여행 차 스리랑카에 방문했던 박준용 단원과 론니플래닛 책을 가이드 삼아 콜롬보 이곳 저곳(Dutch hospital, International trade center, Barefoot 본점 등)을 돌아보았다.

지난 스리랑카 중부 여행만큼의 볼거리는 없었지만 시골을 잠시 떠나 맞는 도시의 분위기는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칼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우리는 칼라로 향하는 밤 버스에 올랐다.



도서관 프로젝트

02 Korean Class Room

처음부터 스케줄 상에 표시되어 있었던 Korean class room. 이것이 무엇이고 하니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주제로 포크하이스쿨 교실 내부를 꾸며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포크하이스쿨이 아닌 도서관 내부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락을 받았다.

작업에 들어간 우리는 도서관 내부 벽면 한 면을 태극기, 한복, 한글, 비빔밥, 된장국, 소고, 장구, 전통 문양 등으로 꾸몄다.



03 도서관 내부 및 선반 보수

지난 기수가 도서관 내부 페인팅을 모두 끝마쳐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책 선반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책을 들여놓기 위해 선반을 청소하였다.



도서관 프로젝트



04 시각자료 붙이기

갈무네 서점에서 구입한 시각자료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붙였다. 우리가 구입한 시각자료는 인체지도, 태양계, 세계지도, 영어알파벳, 타밀어 알파벳을 다루고 있다.

05 전구 달기

창문을 달았음에도 책을 읽기에는 도서관 내부가 너무 어두웠다. 그래서 도서관 천장에 전구 세 개를 달았다. 기존에 있던 전구까지 합하여 도합 네 개를 밝혀 놓으니 훨씬 도서관 내부가 밝아졌다.



도서관 프로젝트

06 '하름다운 도서관'으로

Korean class room과 시각자료만으로 도서관을 꾸미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는 좀 더 도서관 내부를 꾸미기로 했다. Korean class room이 꾸며진 벽면의 반대 벽에는 Children club 활동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린 것과 End poverty campaign의 결과물 'Happy tree'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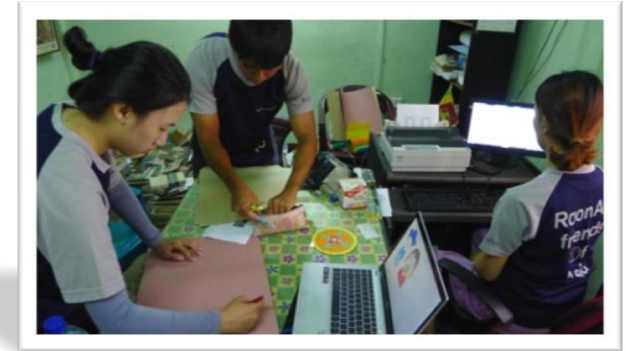
도서관 한 가운데에 있는 기둥 세 면에 게시판을 만들어 붙이고 나머지 한 면에는 아피스쿨 아이들과 함께 찍은 라온아피 9기 스리랑카 팀의 사진과 우리팀 사진을 붙였다.



도서관 프로젝트

06 일정 조정과 앞으로의 계획

본래 우리는 12월 둘째 주에 도서관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도서관을 열기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도서관 개관 예정 날짜를 연기하는 것에 입을 모았다. 그리고 개관식 예정 날짜를 1월 둘째 주로 정하였다. 1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니 바닥 페인팅, 인덱스 만들기, 책 커버 씌우기, 개관식 준비가 남아 있었다. 예정된 날짜에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일정을 짜서 부지런히 활동에 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1월에도 우리의 일 복(福)은 계속되는구먼... 새해 복 정말 많~~~~~이 받는구나~ 하하하하하)



Children Club

01 새로운 시작, CC 창단식

아이들에게 공동체와 리더십을 일깨워주기 위해 탄생한 칼라Y Children Club! 10~11월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12.14일 창단식을 가졌다. 인드라간사님이 일을 그만 둔 상황에서 단원들의 힘만으로 Club의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고 창단식을 개최하느라 다소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욱 보람찼다.



31명의 Children Club멤버들과 30명 정도의 외부손님(지역주민, 아이들의 부모님, 칼라Y식구와 커미티멤버 등)을 초대해 열린 창단식은 라온아피가 약 10개월간 칼라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이기도 했다.

Children Club

01 새로운 시작, CC 창단식



약 10분간 3월부터 현재까지의 활동과 Children Club의 창단 목적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피들이 Club의 리더로 선출한 신두젠(13세)학생에게 선서와 리더연설을 맞춰 Club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게 했다.

창단식 도중에는 Club멤버들에게 회원증(ID카드)을 나눠주고 손님들에게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였는데 60명분으로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Children Club

02 금요일은 CC Day!

〈 20년 후 내모습 그리기 〉 - 12.20

창단식 이후 돌아온 첫 금요일에 Children Club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모든 학교가 방학을 맞아 아피스쿨의 출석률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에 모든 아이들에게 금요일에 있을 활동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다.(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원의 수업 시간이 방학을 맞아 바뀌는 바람에 아피스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



따라서 Club활동이 있는 금요일 오전 모든 멤버들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다행히 20명이 넘는 멤버들이 참석한 첫 활동은 아피들이 미리 준비한 책모양의 종이에 2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적는 활동을 했다. 완성된 종이를 서로에게 보여주며 아이들 스스로 그림과 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월 개관하는 칼라Y 도서관에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을 걸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아이들 또한 자신의 완성품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했다.



Children Club

02 금요일은 CC Day!

〈 작은 운동회 〉 - 12.27



아피들은 Children Club 활동을 구상할 때 예체능수업이 부족한 공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준비하기로 했다. Children Club의 두 번째 활동 시간에는 칼라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운동장에서 Club 멤버들과 아피들이 함께 하는 작은 운동회를 열었다.

5인 6각 달리기, 신문지 게임, 풍선 옮기기 같은 한국식 공동체 게임을 즐기며 아이들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YMCA 건물 안이 아닌 바깥으로 나와 '함께함'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었다.



NCY와 아피들

01 락산 총장님과의 만남

12월 22일 YMCA Folk High School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차 칼라에 방문한 락산 NCY-SL(스리랑카 YMCA전국연맹) 총장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아피들은 현재까지 진행한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총장님과 함께 논의하였다. 락산 총장님의 유쾌한 성격과 한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 덕분에 대화 시간은 전혀 지루할 새 없이 즐겁게 흘러갔다. 활동 막바지에야 총장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총장님은 남은 1월은 스리랑카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체험날짜를 정할 것을 제안하셨다.



02 새로운 코디네이터

중간평가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드라 간사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 이후 약 3주간 공석이었던 코디네이터자리에 빈쵸 간사님이 새로 오셨다. 빈쵸 감사님은 그동안 일을 계속 하면서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아피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12월부터 간사님께서서는 아피들과 Y의 상황, 그리고 프로젝트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와 조금씩 가까워 지고 계신다. 아피들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깊게 이해하던 인드라 간사님이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활동 막바지에 새로운 코디네이터와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것도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아직은 간사님과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도서관 개관, 북부지역 문화 탐방, Children Club 현장체험활동 등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1월을 함께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성탄, 연말 행사

01 친구와 가족들의 졸업식

12월이 되고 우리는 세 곳의 학교 또는 유치원으로부터 졸업식 행사에 초대받았다. 12월 8일, 박산디 엄마의 딸이 선생님이로 재직하고 있는 Angels play & preschool 졸업식에 참석했다. 여러 날 연습한 춤을 앞에 나와 선보이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웠다.

Kallar YMCA 유치원 아이들도 졸업을 맞이했다. 대략 2시간이 걸린 긴 행사였지만 실수조차도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



YMCA Fork high school에서는 10월부터 전쟁의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싱할라인, 무슬림 선생님과 타밀인 학생들이 모여 3개월동안 동고동락 하며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배움을 마치고 이 곳 학생들도 졸업을 맞이하였다. 졸업의 기쁨과 함께 그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진한 마음의 벗이 된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성탄. 연말 행사

02 캐롤 라운드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인 칼라에서도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명절이다. 온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기쁨의 인사를 나누는 성탄절. 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의 크리스천에게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기도 하다. 한국에 있었다면 각자 교회에 가거나 친구, 혹은 연인들과 캐롤을 들으며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냈을 크리스마스와 달리 이 곳 칼라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는 마치 우리나라 설날처럼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명절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캐롤 라운드에 참여하여 집집마다 캐롤을 부르며 춤을 추면서 새벽까지 돌아다녔다. 노래와 춤에 답하여 이웃들은 저녁을 먹지않아도 될 정도의 간식거리를 계속 내어주셨다. 산타로 분한 준용단원과 탐버린을 든 지수단원은 타밀어로 된 캐롤을 흥얼흥얼 따라부르며 교회 멤버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캐롤라운드에 조금 지치기는 했지만 배가 터질정도로 간식도 얻어 먹고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 밤이었다.

성탄, 연말 행사

03 교회에서의 찬양과 이웃들의 초대



우리가 주일마다 나가는 교회의 식구들로 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 행사와 31일 송구영신예배 때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 행사 때에는 영어 곡을 부탁받아 우리는 성탄절 캐롤송인 “Joy to the world”를 불렀고, 31일에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다. 활동이 없는 시간에도 노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우리가 칼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에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연습과 실전에 임했다.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지내며 단골 상점 할머니네, 집 주인 할머니네, church member인 찬드리카 언니네, 옆집 사는 요리 선생님 박산디 엄마네 등 여러 곳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로 몸 둘 바를 몰랐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 정말 이 곳 칼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숏잇의 세계 >.<

숏잇이란??

“Short Eat”을 현지인들의 발음을 따라 나타낸 것으로 차나, 음료와 함께 먹는 간식거리를 의미한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쉽게 ‘주전부리’ 정도가 되겠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숏잇 사프르” (사프르 = ‘먹다’라는 뜻의 타밀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다. ‘쇼디? 소디? 커리의 한 종류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군것질 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홍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스리랑카. 물론 그냥 차만 마시면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 차 문화가 발달한 만큼 그와 함께 하는 주전부리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리랑카의 간식거리, 숏잇의 세계로 함께 ㉠ ㉠!!



ㅋㅋㅋㅋㅋㅋ



무엇으로 만든 음식이고?

01

“와데”

“와데”는 숯잇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다. 스리랑카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와데는 렌틸콩을 갈아 반죽을 만들고 고추와 양파, 여러가지 향신료를 더해 손바닥 크기로 빚은 다음 튀겨낸 것이다. 처음에는 향이 너무 강하고 기름기가 많아 쉽게 먹기 힘들었는데 먹을 수록 그 맛에 중독되는 듯 하다. 이제 간식 먹을 때 와데가 없으면 섭섭할 정도이니 과연 숯잇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중독 주의

칼라사람들이 “뭇파이 로피”라고 부르는 이 것은 밀가루 반죽 안에 으갠 카사바와 감자, 삶은 계란 반 개, 각종 향신료를 넣어 만들어낸 튀김이다. 삼각형 모양, 때로는 커다란 춘권 모양의 에그로피를 만날 수 있다. 하나에 약 300원 정도 하는 데 그 맛과 속의 알참은 3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 하나 먹고 배부를 주의

참~ 실하다 실해! 속이 팍~찬
“에그로피”

02



바다 향기와 고소함의 조화

03

“커틀렛”



※ 지각 주의

“커틀렛”은 말 그대로 곱게 다져 만든 부드러운 튀김이다. (타밀어, 싱할라어와 더불어 영어는 스리랑카의 세 번째 공용어이다. 영국 식민 지배의 시대부터 사용하던 영어 단어들을 스리랑카 사람들은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칼라의 커틀렛은 스리랑카 동부지역 바다의 향기를 듬~뿍 담은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다. 잘게 다신 생선살과 커리 파우더,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다져 넣고 동그랗게 빚어서 튀겨낸 커틀렛. 생일파티나 가족 행사에 가면 종종 만날 수 있는 홈메이드 솜짓 중 하나다. 늦게 가면 없어서 못먹는 커틀렛! 그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모임에 절대 늦게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특별한 과자

04

“무루꾸”



“무루꾸”를 처음 만났을 땐 그 기상천외한 겉모습에 지레 손사래를 쳤던 기억이 난다. 옆집 엄마가 결혼식때 먹는 웨딩 스위트라며 접시에 담아 주었던 것이 무루꾸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튀겨내는 시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져서 잘못 만들면 어금니가 아작날 것만 같을 정도로 딱딱해 지지만 씹다보면 어느새 그 달콤함과 고소함에 빠져들게 된다.

※ 어금니 주의

아기들이 먹는건가..?

05

“라트뚜”



※ 귀여움 주의

“라트뚜”는 치즈가 듬뿍 올려진 피자가 먹고싶어 미칠뻔 했던 시기에 마치 가뭄에 단비처럼 나에게 다가온 특별한 간식이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너무 달다며 한 입먹고 손길을 끊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설탕을 오랜시간동안 함께 끓여서 굳혀낸 것으로 카라멜과 비슷하다. 지방 함유량이 높은 우유 덕에 정말 고르곤졸라 치즈 맛이 난다. 현지 생활 중 고르곤졸라 피자가 생각난다면 토피가 그대를 달래주리라.

“라트뚜”는 만들기가 다소 까다로워서 그런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쉽게 만나보기 힘든 간식이다. 우유와 설탕을 함께 녹여 기본 재료를 만들고 땅콩이나 생강 또는 취향에 따라 젤리를 넣어 만들어낸다. 처음 라트뚜를 보았을 땐 꼭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 시기의 간식처럼 보였다. 어린시절 먹던 어린이 과자 베베가 생각나는건 왜일까? 그리 딱딱하지도 않고 하얀 빛깔에 모양도 귀여워서 보들보들한 아기피부가 떠오르게 만드는 과자이다.

헐..웬 고르곤졸라 치즈맛이?!

06

“토피”



※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림 주의

파리바게뜨가 부럽지 않은

07

“컷팅케익”



※ 하나 더 먹고 싶음 주의

“쌈사”는 내가 솟잇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녀석이다. 칼라는 힌두교가 마을의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 길가에 돌아다니는 소는 많아도 소고기는 보기 힘들다. 그런데 바로 옆 무슬림 마을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를 구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소고기로 속이 짝~찬 쌈사까지 맛볼 수 있으니 나에게서는 마치 신세계와도 같았다. 따뜻할 때 먹으면 금방 구워낸 고기만두가 절로 생각난다. 그러나 그 고소함 만큼은 군만두도 따라올 수 없을 듯 하다.

“컷팅케익”은 말 그대로 잘라서 먹는 케익이다.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는 솟잇계의 단골 손님! 네 모난 케익 틀에 넣어 구워낸 빵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맛은 우리나라의 카스텔라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한국의 빵집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냥 있으니까 먹는거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먹어야 하는 게 아쉬울 정도이다. ‘함께 나눠 먹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컷팅케익. 한국에 돌아가면 그 맛보다 정이 더 그리울 것 같다.

아니, 이것은!! 소고기 군만두..?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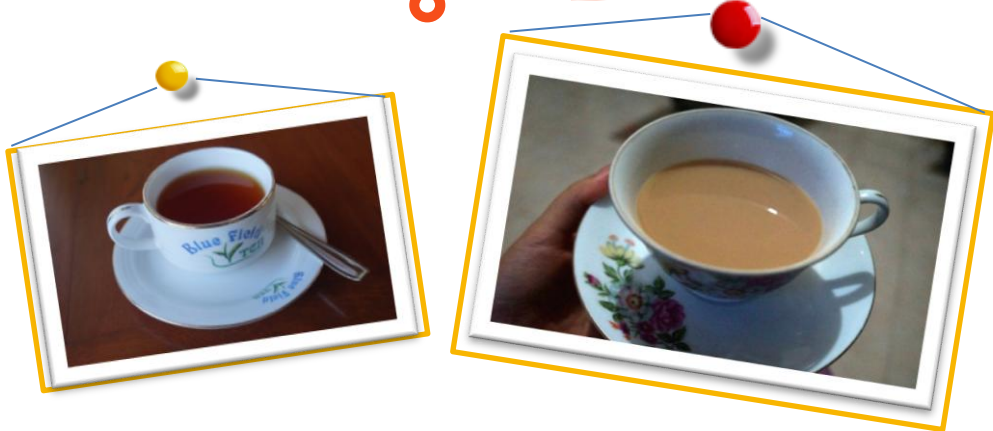
“쌈사”



12월 에디터 특집_지수공간

홍차도 한 가지만 있는게 아니야!

보너스 “홍차의 세계”



스리랑카의 홍차는 전 세계 적으로 유명하다. 비록 홍차가 스리랑카의 대표 작물이 된 배경은 밝게 웃으며 이야기 하기 힘들지만 홍차의 품미와 하루 두 번의 티타임 만큼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홍차는 찻 잎 재배지의 고도에 따라, 건조 기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져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칼라 사람들이 마시는 홍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플레인 티, 밀크 티, 진저 티, 코피가 바로 칼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차의 종류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종류와 상관 없이 우리 입맛에는 정~말 달다. 처음 플레인 티를 먹었을 때는 그냥 홍차 시럽을 먹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갈수록 스리랑카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단 맛에 우리도 익숙해 지고 있다. 우유를 넣지 않은 플레인 티와 다르게 밀크 티는 그만의 부드러움을 자랑한다. 진저 티는 홍차와 생강차를 섞은 듯한 맛이 난다. 평소 생강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칼라의 진저 티는 내 입맛 까지 사로잡을 정도이다. 코피는 기존에 먹었던 홍차와는 또 다른 맛이다. 커피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슷한 이름과는 달리 향 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다. ‘홍차에서 이런 맛도 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코피. 다양한 주전부리 만큼 홍차 역시 종류별로 즐길 수 있어 스리랑카에서의 티타임을 한층 더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 ^-^

스리랑카에서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굶고 다니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글을 본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걱정에서 부러움으로 바뀔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랑카의 솟잇이 종종, 아니 정말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돌아가기 전에 많~이 즐기다 가야지! 달달한 홍차와 갖가지 간식들을 즐기고 싶다면 스리랑카 만한 곳도 없으니 주저 말고 오시길! 그럼 모두들 해피솟잇! ^^

12월 소감 한 마디!



솔지 단원

우리가 기획했던 활동들의 대부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12월까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쌓여 있는 일거리를 보며 리더로서의 부담감을 느꼈었다. 가뜰이나 12월은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런데 또 퇴원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리더? 별거 아니더라. 단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진짜 리더라고 별거 없고 부담감도 제로.

어쨌든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12월이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며, 매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알차고 뿌듯한 느낌에 흐뭇해하던 적이 많았다.

얼마 안 남은 시간,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 칼라 지역 사람들을 실컷 사랑하다 가련다.



규홍 단원

참 분통터지고 행복한 4개월이었다. 칼라에서 칼라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는 다시 사춘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단순하고 코믹한 유행가 하나로 모든 세대가 함께 흥얼거리는 이곳에서 행복해질 때도, 정~~말 단순한 타자도 못쳐 몇 시간을 끄는 이들을 보며 분통터질 때도 있듯 하루에도 몇 번씩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가는 나를 보며 사춘기로 돌아갔음을 깨닫는다(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을 보니 진짜 그렇다).

하지만 사춘기면 어쩌랴 '나'라는 젊은 한국인이 이곳 사람들과 부대끼고 이곳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행 후 느끼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때로는 멍기도 하면서도 평생 신경 쓰이게 될 그 느낌은 가본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이다.

12월 소감 한 마디!



준용 단원

시간은 훌러훌러 지금까지 왔네요. 팔뚝은 점점 더 까매졌고, 9월에 처음 왔을 땐 딱딱하고 풋내나던 집 앞 마당의 망고는 이제는 노랗게 변해서 단내가 심해져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의 군침을 돌게 하고 있네요. 이번달도 지난 3달과 비슷했던 것만 같네요.

특별히 기억될 만한 강력한 기억도, 시간들도 되짚어 보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공허하기도 하고 울먹함이 이따금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이런 감정과 느낌들이 드네요.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엄청 안 듣는 8살 레한도, 한 달밖에 안남았으니 쉬지 않고 먹어야 된다는 옆집 박산디 엄마도...



지수 단원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길게 느껴질 것만 같았던 5개월도 어느새 거의 다 지나가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 11월이 나에게 '쉽'과 '멈춤'의 시간이었다면 12월은 '비움'과 '내려놓음'의 시간이었다. 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곳 스리랑카, 스리랑카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 바닥에 닿았다. 1월은 그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려 한다. 1월 중순의 여행과 마지막 출국 전 여행을 제외하면 칼라에서의 시간은 약 3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이곳을, 특히 이곳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